

제주도 최초 풍년기원 '통수식'

✎ 강재남 기자 | ㉠ 승인 2024.04.25 13:15 | ☐ 호수 3580

한국농어촌공사제주, 무릉저수지서 개최

[한국농어민신문 강재남 기자]



지난 24일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저수지에서 '안전영농·풍년농사 기원 2024 무릉저수지 통수식'이 제주지역 최초로 열리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김동철 본부장)는 지난 24일 제주도 최초 통수식을 무릉저수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수식에는 위성곤 국회의원, 양병우 도의원, 한국농어촌공사 송성일 농어촌이사, 현광수 노동이사 및 지역농업인 등 140여명이 참석해 올해 안전 영농 및 풍년 농사를 기원하고 본격적인 영농급수를 위한 청정용수의 물길을 열었다.

통수식은 논농사 중심의 농업문화에서 4월 중 한해 농사 시작에 앞서 저수지 수문을 통해 물꼬를 여는 행사로 매년 각 지역별로 통수식을 실시하고 있다.

이상기후로 인한 가뭄과 시설재배 증가 등으로 지하수 사용량이 증가한 상황에서 제주 지하수를 보전하기 위해 용천수, 하천수, 빗물 등 대체 수자원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통수식이 열린 무릉저수지는 대체 수자원인 용천수를 활용한 30만톤 규모로 지난해 말 완공됐으며, 대정지역 2164ha에 대해 농업용수를 연중 상시 공급할 예정이다.

김동철 본부장은 "올해 영농에 대비해 선도적인 농업용수 관리로 농업인에게 물 부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